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미심쩍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미심쩍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미심쩍다

완성된 이름

미심쩍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미심쩍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분명하지 못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는 데가 있다.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미심적다		
미심쩍다		
미심떡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분명하지 못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는 데가 있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미심쩍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분명하지 못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는 데가 있다.



미심쩍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미심쩍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심적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미심쩍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미심씩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미심적- 문헌 수록 표기	—	—	—	—	—	●→
미심씩- 문헌 수록 표기	—	—	—	—	—	●→
미심스적- 문헌 수록 표기	—	—	—	—	—	●→
미심씩-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미심적다
20세기
- 미심쩍다
20세기현재
- 미심씩다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미심적-, 미심쩍-, 미심씩-, 미심스적-

↳ 미심적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미심쩍다’의 옛말인 ‘미심적다’는 20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미심적-’은 한자어 ‘未審’을 한글로 표기한 ‘미심’에 현대어 ‘-적-’으로 이어지는 접미사 ‘-적-’이 결합한 것이다. 이후 접미사 ‘-적-’이 ‘-찍-’으로 바뀜에 따라 ‘미심찍-’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표기 방식과 특징

같은 시기에 보이는 ‘미심씩-’은 ‘ㅈ’의 된소리를 ‘ㅆ’으로 표기하는 옛 관습을 따른 것이다.

📖 문헌 속의 미심쩍다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미심적-, 미심씩-, 미심스적-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미심적-, 미심씩-, 미심스적-, 미심씩-

출처 1925 조선일보 8월19일 3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남편의 마음이 미심적은 듯이 넘거집는 수작도 하야 보니싸.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조선일보 11월 7일 2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그래도 미심씩어서 아이놈을 불러 무러보니까.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조선일보 7월 12일 5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눈이 툇툇 부은 모녀를 미심스적게 번갈어 본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9 조선일보 12월19일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법제국에서 이출조합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 미심씩은 점이 잇다고 하여 심의가 느껴지고 잇
섯는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미심쩍다에 관한 주석

‘미심쩍다’와 ‘미심쩍다’가 모두 20세기에 처음 나타나는데, ‘미심쩍다’가 ‘미심적다’보다 먼저 만들어진 말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미심쩍다’와 비슷한 단어 구조를 지닌 ‘의심쩍다’가 변화해 온 과정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의심쩍다’는 18세기에 ‘의심적다’로부터 ‘의심적다>의심적다>의심적다’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미심쩍다’도 동일하게 ‘-적->-적-’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적-’의 ‘ㅈ’이 어떤 이유로 인해 된소리화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미심쩍다 관련 낱말



- 의심쩍다형용사불확실하여 믿지 못할 만한 데가 있다.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미심쩍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황문환 2001 ‘의심적다’와 ‘의심적다’: 유추에 의한 어간 오분석의 일례 《형태론》 3-1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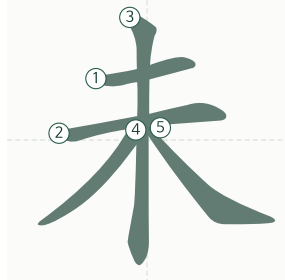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미심쩍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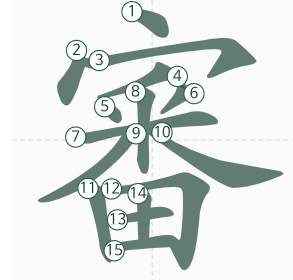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未 뜻·음 아닐 미
총 5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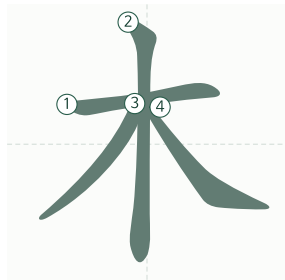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未/

審 뜻·음 살필 심
총 15획 · 부수 讠



hanja.wordrow.kr/한자/審/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木/